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

조재천*

1. 들어가는 말

2021년 출판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하 줄여서 『새한글』)은 국역 성서 중 ‘신역’(新譯)의 계보를 잇는 최신 번역이다.¹⁾ 『새한글』은 그 목표 독자를 ‘젊은이들’로 특정하면서 『개역개정』을 대체하는 강단용 성서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따라서 『새한글』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장 큰 가치는 젊은이들이 읽기 쉬운 성서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새로운 성서를 읽으며 기존 국역 성서, 특히 『개역개정』에 비해서 얼마나 더 쉽게 느끼고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별도의 통계적, 실증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가독성의 향상과 아울러 『새한글』 번역자들이 두 번째로 내세운 새로운 국역 성서의 가치는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다.²⁾ 이 연구의 목적은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고대 기독교와 유대교(Christianity and Judaism in Antiquity)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전주대학교 조교수. jcho@jj.ac.kr. 본 논문은 2022년 4월 23일 안양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113차 한국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 “성서번역의 이상과 현실: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민현식은 한글 성경 번역의 두 흐름을 ‘구역(舊譯) 성서’와 ‘신역(新譯) 성서’로 구분하고 전자의 계보를 『성경전서』(1911) - 『성경개역』(1938) - 『개역한글』(1952, 1961) - 『개역개정』(1998)으로, 후자의 계보를 『새번역신약』(1967) - 『공동』(1977) - 『표준』(1993) - 『공동개정』(1999) - 『새번역』(2001)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이라고 설명했다. 이 두 범주는 번역문이 옛말체를 띠는지 새말체를 띠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이두희, 박동현,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117-119.

2) 이 표현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머리말에 나온다. 『새한글』이 번역 원

『새한글』이 이 두 번째 약속, 즉 원문에의 근접성을 어떻게,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절대적 평가가 내포할 주관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번역 시기와 독자 규모에 있어서 고려할 가치가 있는 기존 두 역본,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상대적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지면의 제한을 고려해서 내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범위는 『새한글』 누가복음이다.

이 연구에서 나는 『새한글』의 원문 근접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세 항목을 검토할 것이다.

- (1) 새로운 번역으로서의 새로움: 『새한글』이 이전 국역들을 답습하는 대신 원문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고, 풍성한 우리말로 옮겼는가?
- (2) 번역 대본의 권위와 최신성: 『새한글』의 번역 대본은 가장 최신의 사본 비평적 성과를 반영한 본문인가?
- (3) 번역 대본에 부가된 각종 본문 보조 장치의 반영: 본문 자체의 확립과 관련된 이중 대괄호와 대괄호를 『새한글』이 어떻게 다루었는가?

2. 『새한글』 본문의 원문 근접성 평가

2.1. ‘새로움’의 문제: “New Korean” or “New Translation”?³⁾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이다: 『새

척상 역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인지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e)인지는 어디에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머리말 등에 서술된 ‘번역 특징’ 중에는 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항목(7번과 8번)도 있고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항목도 있다(2번, 5번). 나는 이 연구에서 그 두 번역 원칙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한 번역이 항상 더 ‘좋은 번역’이라고 주장하지도, 논증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고 논증하려는 것은, 적어도 이 논문에서 다루는 누가복음의 여섯 본문에 있어서, 『새한글』이 형식적 일치 번역의 면모를 띤다는 것이다. 이 여섯 본문이 『새한글』의 전반적 번역 원칙을 충실히 대표하는 사례들인지, 혹은 최소한 누가복음의 전반적 번역 원칙을 충실히 대표하는지의 문제는 별도의 논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이후 다른 연구자에 의해 『새한글』의 특정 번역 본문이 형식적 일치보다는 기능적 일치에 가깝다는 사실이 논증된다면, 『새한글』의 번역 원칙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병용한 혼합적 성격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새한글』이 ‘젊은이들’을 주 독자층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역동적 일치 원칙에 따른 번역일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 3) 『새한글』의 영문 표기는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이다. 참고로,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영문 표기는 각각 New Korean Revised Version과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이다.

한글』은 새로운 번역인가? 아니면 기존 번역을 새로운 시대의 한글로 고쳐 표현한 것인가?) 다시 말해, 『새한글』 번역자들이 기존 국역의 우리말 표현과 문장을 바로잡거나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고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스어 본문을 단지 부분적으로 — 심각한 오역이라고 알려진 번역어를 바로 잡는 데 한해서 — 참조했는가? 아니면, 아예 국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원점(zero-base)에서 그리스어 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우리말로 옮겼는가? 혹은 이런 물음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우리가 이미 백 년 이상 국역 성서를 읽어 온 데다가, 성서 번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국역 성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고 그 내용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원점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번역은 이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원칙을 그렇게 정립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최종 결과물에 있어서 작지 않은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새한글』이 새로운 번역인지는 묻는 질문이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은 아니다.

『새한글』이 번역 과정에서 원문을 얼마나 직접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천명된 번역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번역 본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먼저 번역 원칙을 보자.5) 『새한글』 “머리말”에 제시된 번역 원칙 15번에 “신약성경의 경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5판(2014년)과 네스틀레 알란트(sic!)의 <그리스어 신약성서>(NTG) 제28판(2012년)을 대본으로 삼고, <그리스어 신약성서 대비평본>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서술은

4) 앞서 민현식이 지금까지 출판된 국역 성서를 번역어 문체를 기준으로 두 범주, ‘구역 성서’와 ‘신역 성서’로 구분했음을 언급했다. 번역어 문체가 번역 성서를 성격 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인정하지만 ‘구역’과 ‘신역’이라는 용어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는 최초 국역성서, 『성경전서』(1911)의 별칭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고, 후자는 한자 뜻 그대로 새기면 ‘새로운 번역’인데, 이는 우리가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와 직결되는 개념이다. 기존 국역의 우리말을 다듬는 것을 주로 하고 명백한 오역의 사례들만 원문을 참조해서 수정한다면, 그것을 ‘신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민현식이 ‘신역 성서’의 범주에 넣은 『공동개정』과 『새번역』(=『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 둘, 그리고 민현식의 ‘구역 성서’ 중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개정역’(a revision)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와 대비되는 범주, 즉 원문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검토하면서 번역한 역본들을 ‘신역’(a new transl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성경개역』, 『공동』, 『표준』, 그리고 『새한글』이 여기 속한다. 『성경 개역』(1938)의 경우에는 개정역적 성격과 신역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5) 『새한글』의 번역과 표기 원칙에 관한 안내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첫째는 『새한글』의 머리말과 일러두기(총 6쪽 분량), 둘째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의 “일러두기”(2쪽 분량), 셋째와 넷째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에 제공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마가복음 번역 해설”(71쪽 분량)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45쪽 분량)이다.

앞서 언급한 ‘원점에서의 전면적인 재번역’을 천명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몇 줄의 서술된 원칙만으로 『새한글』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원칙을 설정하는 것과 그것을 관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본문을 가지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대조를 위해 나는 한편으로는 원문,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국역들을 제시할 것이며, 한정된 지면상 여섯 구절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연구 대상을 여섯 구절이라는 분량으로 한정된 것은 순전히 지면의 한계를 고려한 임의적 결정이고, 기존 두 역본과의 대비를 뚜렷하게 보여줄 만한지, 그 대비점들이 주석적, 신학적 중요성(significance)을 띠는지를 고려해서 선정했다.

2.1.1. 누가복음 3:23-38

NTG	²³ Καὶ αὐτὸς ἦν Ἰησοῦς ἀρχόμενος ὡσεὶ ἐτῶν τριάκοντα, ὢν υἱός, ὡς ἐνομιζέτο, Ἰωσήφ τοῦ Ἠλὶ ²⁴ τοῦ Μαθθαὶ τοῦ Λευὶ τοῦ Μελχὶ τοῦ Ἰανναὶ τοῦ Ἰωσήφ ... ³⁸ τοῦ Ἐνώς τοῦ Σίθ τοῦ Ἀδάμ τοῦ θεοῦ.
『개역개정』	²³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⁶⁾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²⁴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 ³⁸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시니라
『새번역』	²³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²⁴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맛닷, 레위, 멜기, 안나, 요셉, ... ³⁸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새한글』	²³ 예수님이 몸소 나서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었다. 사람들이 알기로 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²⁴ 그 윗대는 맛닷, 레위, 멜기, 안나, 요셉이다. ... ³⁸ 그 윗대는 에노스, 셋, 아담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첫 번째 사례는 누가가 서술한 예수의 족보 첫 부분이다. 여기에는 그 신학적, 문화적 함의 때문에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그리스어 표현들이 들어 있다. 세 국역 간에는 이런 저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개역개정』의 작

6) 번역 대조를 위해 번역문 일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것은 모두 필자가 했다.

은 글씨체로 표시된 ‘가르치심을’은, 상응하는 낱말이 원문에 없지만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을 위해 번역자가 더한 말이다. 『새번역』의 ‘활동을’과 『새번역』의 ‘일하기’도 마찬가지다. 예수의 공적 사역을 통칭하기에 ‘가르치심’은 협소한 것 같고, ‘활동’과 ‘일’이 포괄적이어서 더 좋아 보인다. 다만, 어차피 원문에 없는 말이니 원근 근접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두 번째 차이는 『새한글』에만 나타나는 ‘몸소 나서서’이다. 이 번역은 원문의 강조형 인칭대명사 αὐτός를 잘 살렸다.

23절 중간에 ὡς-절의 번역에 있어서는 세 국역이 대동소이하다. ‘알다’(『개역개정』과 『새한글』)와 ‘생각하다’(『새번역』)는 이 문맥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수동태 ἐνομίζετο를 능동태를 바꾸면서 ‘사람들이’를 삽입한 점에서도 세 번역이 동일하다. 하지만 이 세 번역 모두 원문의 의미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가? 세 국역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알고 있을 뿐,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넌지시 말하는 것 같다. 요셉이 예수의 생부(生父)가 아님은 이미 누가복음 1-2장 탄생기사에 밝혀져 있다. 이 구절의 논점은 요셉과 예수의 생물학적 관련성 여부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신학적 관계이다. 단지 사람들의 눈에만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라면, 요셉을 고리로 올라가는 계보상의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도 그런가? 원문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임을 의심하는 뉘앙스 없이 그 사실을 중립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국역 ‘사람들이 알기로는/생각하기로는’은 원문이 담고 있지 않은 부가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려면, ‘알려진 것처럼’ 정도로 기존 국역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세 국역 간 가장 큰 차이는 원문에 속격 구문으로 표현된 부자 관계의 번역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개역개정』이 가장 일관된 번역을 했다. 그리스어 속격이 나오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우리말로 옮겼기 때문이다. 반면 23절 끝 문장에서 『새번역』과 『새한글』은 속격 구문을 의역했고 이어지는 24절과 그 이하 모든 속격 구문을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과 “그 윗대는”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일관성을 깨뜨렸다. 사실 ‘위’ 혹은 ‘윗대’라는 번역어가 그리스어 속격을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누가복음 저자가 ‘위’를 뜻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족보 끝에서 『새번역』과 『새한글』은 다시 속격 구문의 번역을 바꾼다. 『새번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옮겼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속격 구분을 ‘그는 맛닷의 아들, 그는 레위의 아들, …’ 등으로 일관되게 번역했으면 좋았겠다. 『새한글』은 속격을 기원, 출처의 의미로 보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옮겼다. 그것도 가능한 번역이지만 왜 앞에 나온 수십 개의 속격은 그렇

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지막 하나만 그렇게 번역했는가?

종합하면, 『새한글』 누가복음 3:23-38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히, 삽입구인 $\acute{\omega}\varsigma \acute{\epsilon}\nu\omicron\mu\acute{\iota}\zeta\epsilon\tau\omicron$ 와 속격으로 구성된 족보 공식의 번역에 있어서 『새한글』은 원문에 집중하기보다 이전 두 국역의 영향을 (아마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받은 듯하다.

2.1.2. 누가복음 4:44

NTG	$\text{Καὶ ἦν κηρύσσων εἰς τὰς συναγωγὰς τῆς Ἰουδαίας.}$
『개역개정』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떤 사본에는, 유대
『새번역』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갈릴리’
『새한글』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아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 *어떤 사본에는 ‘갈릴래아’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이 ‘유대’ 대신 ‘갈릴리’를 본문에 둔 이유는 그것의 대본 때문이다.⁷⁾ 사본상 중요한 이문을 다루는 대목에서, 『개역개정』은 거의 항상 『개역한글』(1952)을 따르고, 『개역한글』은 『성경개역』(1938)을 따른다. 『성경개역』은 최초 국역 『성경전서』(1911)와 다른, 새로운 신약 성서 대본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개정을 거쳤다고 알려져 있다.⁸⁾ 하지만 구

7) 『개역개정』 머리말에 따르면, “<개역> 성경이 사용한 원본을 존중하며, 원문 대조 문제가 제기될 때는 가능한 한 최근의 편집 본문 <신약 그리스어 성경> (GNT UBS 4판)과 <구약 성경> (BHS)까지 철저히 대조하였다”. 이 짧은 문장은 그것이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음을 제기한다: (1) “<개역> 성경이 사용한 원본”이 무엇인가? (2) “원문 대조 문제가 제기될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구절에서인가? (3) “가능한 한”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원문 대조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가? (4) GNT⁴까지 철저히 대조”한다는 것은 대조해서 『개역한글』 본문을 수정한다는 의미인가? 이른바 “<개역> 성경이 사용한 원본”과 GNT⁴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가 많았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8) 류대영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전서』 번역자들이 사용한 신약 대본은 E. Palmer, ed., *H KAINH DIAΘ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이하 ‘옥스퍼드 판’(1881)으로 표기)이었고, 개역자회가 사용한 대본은 에버하트 네스틀레(E. Nestle)의 NTG¹²(1923)이었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5-36, 171. 한편, 류대영 등은 1923년 출판된 네스틀레의 본문을 ‘제14판’이라고 서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23년은 제12판이 출판된 해이고, 제14판은 1930년에 출판되었다. E. Nestle ed.,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scriptis collecto*, 12th edition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개정을 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래 누가복음 10:42의 예를 보면, 『성경개역』이 네스틀레 본문에 맞추어 『성경전서』를 고쳤지만 위 구절의 경우, 네스틀레 본문에 이미 Ἰουδαίας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성경전서』의 ‘갈릴리’를 수정하지 않았다. 즉, 『개역개정』에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개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번역』과 『새한글』은 공히 NTG 최신판을 따라 ‘유대’/‘유대아’를 기본 본문에 두었다. 또한 둘 다 원문의 καί를 살려 옮겼다.

『새번역』과 비교해서 『새한글』이 번역 내용상 달라진 점은 두 가지이다. ‘선포하다’의 목적어(원문에는 없음) ‘복음’을 ‘말씀’으로 대체했고, 부사 ‘계속’을 추가했다. 전자의 변화는 원문과 별 상관없다. ‘선포하다’라는 우리말 동사의 쓰임을 고려해 번역자들이 직접목적어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역개정』처럼 직접 목적어 없이 κηρύσσω 동사를 ‘전도하다’라고 바꾸어 옮긴 것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동사 자체의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새번역』과 『새한글』이 원문을 더 충실히 반영한다. 다음으로 부사 ‘계속’을 추가한 것에 있어서는 『새한글』 번역자가 그리스어 본문을 면밀히 살폈음을 더 분명하게 시사한다. 그리스어에서 εἰμί 동사가 분사와 함께 쓰이는 우언적(periphrastic) 구문은 지속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국역도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4:44는 『새한글』이 그리스어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며 번역문을 새로 구성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 준다.

2.1.3. 누가복음 10:1

NTG	Μετὰ δὲ ταῦτα ἀνέδειξεν ὁ κύριος ἑτέρους ἑβδομήκοντα [δύο]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αὐτοὺς ἀνὰ δύο [δύο] πρὸ προσώπου αὐτοῦ εἰς πᾶσαν πόλιν καὶ τόπον οὗ ἤμελλεν αὐτὸς ἔρχεσθαι.
『개역개정』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새번역』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새한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다른 일흔 * 두 명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일을 맡겨 그들을 둘씩 ** 둘씩 내보내 셨다. 머지않아 가시게 될 도시와 장소마다 그들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셨다. *어떤 사본에는 ‘두’가 없음 **어떤 사본에는 ‘둘씩’이 없음

이 구절의 원문 두 군데에 수사 δύο가 대괄호에 싸여 있다. 『개역개정』은 이 둘을 모두 누락했다. 그 이유는 4:44의 경우처럼 『성경개역』과 그 대본 때문이다.⁹⁾ 『새번역』과 『새한글』 둘 다 대괄호 본문을 번역에 반영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달랐다. 『새번역』이 NTG 본문의 대괄호를 그대로 쓴 반면, 『새한글』은 대괄호를 벗겨 내고 난외주로 처리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새한글』은 이전 두 역본과 세 군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원문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 앞에 접속사 καί를 살려 번역했다. 둘째, ἀποστέλλω의 번역어가 다르다. 다른 국역과 영역들은 그 동사를 ‘보내다/send’라고 번역했지만, 『새한글』은 이 단어에 일반적인 ‘보내는 행동’ 이상의 함의가 담겼다고 보고, ‘내 보내다’에 ‘일을 맡겨’라는 부사어를 더한 것 같다. 셋째, 다른 두 국역에 있는 ‘친히’(원문의 αὐτός)가 『새한글』에는 누락되었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¹⁰⁾ ‘친히’를 빼도 실질적인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수 있지만, 만약 번역자가 이전 국역들을 먼저 보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면 굳이 제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새한글』 번역자들이 처음부터 원문을 놓고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1.4. 누가복음 10:42

NTG	ἐνός δέ ἐστιν χρεία· Μαριὰμ ἰγάρ τὴν ἀγαθὴν μερίδα ἐξελέξατο ἣτις οὐκ ἀφαιρεθήσεται αὐτῆς.
『개역개정』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새한글』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세 국역은 문장의 개수와 문장 내 어순에 있어서 같고, 모두 원문을 잘 반영했다. 하지만 번역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 차이가 두드러진다.

먼저,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새한글』과 NTG 원문이 가지지 않은 내

9) ‘옥스퍼드 판’(1881)과 NTG¹²(1923), 두 본문 모두 1절 두 군데에서 δύο를 누락하고 있다.

10) 앞서 눅 3:23을 검토할 때 『새한글』이, 다른 역본들이 누락한 αὐτός를 “몸소”라고 쟁겨 번역한 사례를 보아 이 구절에서의 누락을 실수라고 추정한 것이다.

용을 번역문에 담고 있다. 『개역개정』의 “몇 가지만 하든지”는 번역자들이 만들어 더한 것이 아니라 문두에 ὀλίγων δὲ ἐστὶν χρεῖα ἢ ἐνός가 있는 원문 대본의 번역이다. 이 지점에서 『개역개정』, 『개역한글』, 『성경개역』이¹¹⁾ 일치하고, 『성경전서』와는¹²⁾ 일치하지 않는다. 즉, 『성경개역』 개역자들이 구역에 수정을 가했고, 이 수정이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 이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수정의 출처는 개역자들이 사용한 대본, 즉 네스틀레 NTG¹²⁾(1923)이다.¹³⁾ 의아스럽게도 이 구절에서 『새번역』이 『개역개정』을 따른다. 『표준』(1993)과 그 개정역인 『새번역』(2001)은 1979년 비평 본문(NTG²⁶⁾)을 대본으로 삼았다고 하는데¹⁴⁾ 그 대본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ὀλίγων δὲ ἐστὶν χρεῖα ἢ ἐνός가 살아서 번역된 것이다.

역본들 간에 또 하나의 중대한 내용 차이는 명사 χρεῖα에서 발생한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구문상 주어이지만 우리말로는 서술적 형용사처럼 옮겨져야 자연스럽다. 성서에서 이 단어는 ‘결핍’, ‘부족’, ‘필요’, ‘쓰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¹⁵⁾ 고전 문헌에서도 그 의미가 지배적이지만, 몇몇 용례에서 동계어 형용사 χρεῖος가 ‘유용한’이라는 의미로 나타난다.¹⁶⁾ 번역의 정확성이라는 기준에서 분명 후자보다는 전자가 낫다. 앞서 첫 번째 사안과 같이 이 항목에 있어서도 최초 국역과 최신 국역이 일치하고, 그와 다른, 그 사이 출판된 국역들이 서로 유사한 번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새한글』이 『새번역』과 달라진 지점 또 하나는 문장 끝에 온 ἀφαιρεθήσεται이다. 우리말에서 한 문장에 능동태와 피동태를 혼합하기보다 태를 통일하는 게 더 쉽게 읽히기 때문에 『새번역』이 수동태를 능동형으로 바꾸어 옮겼는지 모르겠다. 『새한글』은 가독성을 약간 타협하더라도 원문의 구문을 그대로 번역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 국역 중 『새한글』이 원문에 가장 근접했다.

11)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난하주에는 “엇던샤본에, 부족한것이하나가잇도다”라고 되어 있다.

12) “그러나 부족한 거시 헉나잇도다”

13) 『개역개정』의 이 구절에 달린 난하주에 “최근의 본문(GNT⁴)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음”이라고 밝혀져 있다. 하지만, 그 최신의 비평 본문에 부합하도록 『개역개정』 본문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번역에 반영되지 않은 본문을 대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14) 『표준』 머리말에 따르면, 번역 대본으로 GNT³(1975년, 1983년 ‘Corrected Edition’[문장 부호와 비평 장치 변경]; 이 둘과 NTG²⁶까지 본문은 동일하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1977년 출판된 『공동』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을 대본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15) 누가복음에서만 6회, 신약 전체에서 49회 나오며 모든 용례에서 ‘필요’, ‘결핍’, ‘사용’ 등을 의미한다.

16) BDAG, LSJ s.v. “χρεῖα”

2.1.5. 누가복음 12:32

NTG	Μὴ φοβοῦ, τὸ μικρὸν ποιῆμιον, ὅτι εὐδόκησεν ὁ πατὴρ ὑμῶν δοῦναι ὑμῖ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개역개정』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새번역』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새한글』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양 떼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이 구절에서 『새번역』과 『새한글』은 원문의 어순을 따르면서 『개역개정』과 달라졌다. 『새한글』이 『새번역』보다 더 『개역개정』에서 멀어졌는데, 두 지점에서 그렇다. 우선 원문의 τὸ ποιῆμιον을 ‘무리’ 대신 ‘양떼’로 옮겼다. 이것은 보다 ‘문자적’인 번역이다. 그리고 맨 앞 명령문에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했다. 뒤에 복수형이 나올 뿐 아니라, 문맥상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굳이 명령문의 주어를 단수형으로 옮겼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단수명사 τὸ ποιῆμιον이 복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군집명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어쨌든 원문에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 2인칭 단수를 2인칭 단수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새한글』은 분명 ‘문자적’ 번역, 직역의 면모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12:32 역본들을 대조해 보면, 『새한글』번역자가 이전 국역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어 본문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2.1.6. 누가복음 19:42

NTG	λέγων ὅτι εἰ ἔγνωσ ἐν τῇ ἡμέρᾳ ταύτῃ καὶ σὺ τὰ πρὸς εἰρήνην· νῦν δὲ ἐκρύβῃ ἀπὸ ὀφθαλμῶν σου.
『개역개정』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새번역』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새한글』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 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두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문장 부호나 문장의 개수는 별개로 하고 번역 내용만 보았을 때 세 국역 간에는 세 가지 주요한 차이가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개역개정』의 작은 글씨체이다. 『개역개정』의 ‘좋을 뻔하였거니와’와 『새번역』의 ‘좋을 터인데’ 둘 다 번역자가 더한, 원문에 없는 말이다. 『개역개정』이 그나마 작은 글씨체로 원문 아님을 표시한 반면, 『새번역』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새한글』은 번역문에 어휘를 보충하는 대신, 접속사 *εἰ*와 동사 가정법 형태로 표현된 회구(希求)의 의미를 우리말 감탄문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전치사 *πρός*를 세 국역이 각각 다르게 옮겼다. 세 의미 다 사전적 의미에 속한다. 다만, 『새한글』이 취한 의미, ‘to the advantage of, advantageous for’가 작동하려면 *πρός* 다음에 속격 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원문에는 대격이다.¹⁷⁾ 어쨌든 이전 국역을 답습하지 않고 낱말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최대한 활용해서 번역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 번째 차이점은 문장 끝 전치사구의 번역에 나타난다. 번역만 보면 이전 두 국역도 나쁘지 않다. 앞서 10:42의 경우처럼, 『새번역』은 능동형 문장이 이어지도록 번역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말 가독성을 높이려 한 시도는 그 나름의 효용이 있다. 하지만 원문 충실도, 원문에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보자면 원문의 수동태 동사를 번역에 고스란히 옮긴 것이 더 좋다. 게다가 『새한글』 번역자는 ‘눈’이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인 것을 놓치지 않고 ‘두 눈’이라고 번역했다.

소결론을 내리자면, 위 여섯 구절을 표본 삼아 세 국역의 원문 근접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새한글』은 명실상부한 (Korean) New Translation이다.

2.2. 번역 대본으로서 그리스어 비평 본문의 문제

『새한글』이 원문을 전면적으로 새로 번역한 성서라면, 그 원문은 최신의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리스어 본문인가? 『새한글』의 대본으로 언급된 비평 본문은 세 가지이다. 그 중 GNT⁵와 NTG²⁸(2012)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새번역』이 사용했던 대본과는 공동서신 부분에서 다르다.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¹⁸⁾이 반영되면서 34군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17) *BDAG s.v. “πρός”*

18) 1970년부터 독일 윈스터 신약성서원문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mentliche Textforschung, INTF)의 주도로 시작된 신약성서 대비평본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신약성서 사본 증거를 모아서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본문 비평 방법인 ‘일관성에 근거한 계보적 방법’(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으로써 분석하여 기본 본문을 재구성하는 작업

다.¹⁹⁾

문제는 신약성서 비평 본문이 지금도 계속 개정 작업 중이라는 점이다. 2017년에 대비평본 사도행전이 나왔고, 2021년에는 대비평본 마가복음이 출판되었는데, 각각 52군데, 33군데에서 현재의 GNT/NTG 본문과 달라졌다.²⁰⁾ 이전 공동서신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대비평본 본문이 그대로 새로운 GNT/NTG 판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복음의 대비평본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새한글』 누가복음 본문에 있어서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이미 『새한글』이 출판되기 4년 전 출판된 사도행전 대비평본이 번역 대본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²¹⁾

2.3. 비평 본문에 있는 대괄호와 이중 대괄호 문제

다음으로 검토할 사안은 『새한글』이 NTG²⁸ 본문의 대괄호([])와 이중 대괄호([[]])²²⁾에 묶인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이다. 대괄호와 이중 대괄호는 여타 비평 기호들과 다른 성격을 띤다.

대괄호는 GNT/NTG 편집자들이 최신의 사본과 사본 비평학을 동원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본문 부분을 표시한다.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 원본문인지, 없는 것이 원본문인지를 편집자들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다. 전체 다섯 권(volumes) 중 제4권 공동서신(2013), 제3권 사도행전(2017), 그리고 제1권 복음서 중 마가복음(2021)까지 출판되었다.

- 19) B. Aland, K. Aland, G. Mink, H. Strutwolf, and K. Wachte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IV: *The Catholic Epistles*. pt. 1: *Tex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28*. NTG²⁸ 공동서신의 본문 변경에 대한 연구로, 김주한, “NA28 공동 서신의 본문 변경 부분에 대한 국역 제안-『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을 참조하여”, 『신약연구』 16:2 (2017), 133-179를 참조할 것.
- 20) H. Strutwolf, G. Gäbel, A. Hüffmeier, G. Mink, and K. Wachte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pt. 1: *Tex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7), 34*; H. Strutwolf, G. Gäbel, A. Hüffmeier, M.-L. Lakmann, G. S. Paulson, and K. Wachte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I: *The Synoptic Gospels, Part 2 The Gospel of Mark*, pt. 1: *Tex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1), 20*.
- 21) 이 주제에 관해서는 즐고, 조재천, “새로운 사도행전 본문 네스틀레-알란트 28판과 대비평본의 차이점들”, 『신약논단』 29 (2022), 113-156과 김주한,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이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 『개혁논총』 60 (2022), 43-76을 참고할 것.
- 22) NTG 편집자들이 대괄호(bracket, [])의 기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NTG²⁵(1963)의 서문에 처음 나오는데, GNT²와 NTG²⁶ 서문에서 약간씩 다른 입장이 나타난다. 대괄호 사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도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즐고, 조재천, “새로운 사도행전 본문 네스틀레-알란트 28판과 대비평본의 차이점들”, 117, 각주 8 참조.

단적으로 말해서 대괄호 안의 내용이 원문일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은 50% 대 50%이다. 하지만, 대다수 현대어 역본의 번역자들은 대괄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본문 비평적 검토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대본으로 삼아 번역한다. 그런 다음 난외주를 달아 해당 부분이 나오지 않는 사본들이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비평 본문의 대괄호를 표현한다.

이중 대괄호는 대괄호보다 그 원문으로서의 진정성이 더 낮은 부분에 붙는다. 마가복음의 결말(막 16:9-20)이나 *pericope adulterae*(요 7:53-8:11)와 같은 단락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의 사본학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들은 신약 원본(*autograph*)에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랫동안 그 부분을 성서 본문의 일부로 읽어 온 교회 전통을 존중해서 GNT/NTG와 같은 비평 본문에 이중 대괄호와 함께 인쇄된 것이다.

2.3.1. 이중 대괄호([])

이중 대괄호가 붙은 두 구절을 먼저 검토해 보자. 누가복음 22:43-44와 23:34상반인데, 이 두 구절에 얽혀 있는 복잡한 사본 비평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나는 『새한글』과 다른 두 국역이 이 두 구절을 다른 방식에 집중할 것이다.²³⁾

이 두 구절의 이중 대괄호 표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국역 성서들은 세 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우선 『개역개정』은 22:43-44에 대해서 전체를 번역했지만, 아무런 표시 없이 본문만을 인쇄했다. 원문에 있는 이중 대괄호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다.²⁴⁾ 반면, 23:34상반에 대해서는 일단 본문을 번역하고 난외주를 달았다(“어떤 사본에 ‘예수께서’부터 ‘하시더라’까지 없음”). 다음으로, 『새번역』은 두 구절 모두에서 본문을 번역해서 인쇄한 다음 이중 대괄호로 묶었다. 원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그리고 난외주

23) 이 비평적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 즉 이 본문의 진정성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들과 주요한 주석가들의 논거에 대해서는 F. Bovon, *Luke 3: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19:28-24:53*,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197-199와 306-307을 참조할 것.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2판,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은 두 구절 모두 삭제하는 결정을 A로 평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주석가들 간에는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 있다.

24) 엄밀히 말해서 『개역개정』이 GNT/NTG 본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대본을 따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개역한글』과 『성경 개역』, 『성경 전서』 모두 이중 대괄호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자의 대본인 ‘옥스퍼드 판’은 본문에 이중 대괄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성경개역』 개역자들이 사용했던 네스틀레 1923년 판에는 이중 대괄호가 나온다. 네스틀레는 이 두 구절을 다른 여러 구절들과 함께 이른바 ‘서방 비삽입’(Western Non-interpolation)과 ‘서방 삽입(Western Interpolation)으로 규정하고 본문 해당 구절들에 이중 대괄호를 사용했다.

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괄호 안의 본문이 없음”이라고 명기해 두었다. 『새한글』이 이 두 구절을 다른 방식은 이중 대괄호 대신 단순 대괄호를 사용한 것만 빼면, 『새번역』과 동일하다.²⁵⁾

결론적으로, 『새한글』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사본 비평적 중요성을 띠는 이중 대괄호를 대괄호로 바꾸긴 했지만, 원문이 표명한 그것의 문제적 성격을 난외주에 명기함으로써 원문 근접성을 확보했다.

2.3.2. 대괄호([])

대괄호 본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NTG²⁸ 누가복음 본문에 대괄호 본문이 총 59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역개정』은 애초에 그大本이 NTG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괄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NTG²⁶ 본문을大本으로 삼았던 『새번역』은 대괄호를 가급적 그대로 번역에 가져와서 인쇄했다. 반면 『새한글』은 인쇄된 본문에서 대괄호를 없애고 해당 부분에 난외주를 붙여 “어떤 사본에는 ‘...’이 없음”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은 『새번역』보다 원문 근접성에서 더 퇴보한 것이다. 난외주를 보지 않으면 독자들이 원문에 명기된 사본 비평적 불확정성을 알아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원문 누가복음에 있던 59개의 대괄호가 모두 국역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그리스어 관사는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치사 *ἐν*의 경우는 그것이 있건 없건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접속사나 계사 *εἰμί* 등도, 그 단어의 유무가 번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대괄호 본문 24개만 『새한글』에 난외주 형태로 반영되었다.²⁶⁾ 나머지 35개를 제외한 것은 『새한글』 번역자들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을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 보았고 다음 여섯 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곳은 본문 수

25) 위 두 가지 방식과 다른 독특한 방식이 『공동개정』에서 발견된다. 『공동개정』은 22:43-44를 아예 본문에서 뺐다. 그 자리에, (없음)을 사용했다. 『공동개정』 번역자들은 원문의 이중 대괄호 속 부분이 원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대신 난외주에 “어떤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라는 서술과 함께 해당 본문의 번역을 제시했다. 놀랍게도 또 하나의 이중 대괄호 본문인 23:34상반은 『공동개정』에 그대로 번역되어 본문으로 인쇄되었고, 아무런 표시나 주석도 붙지 않았다.

26) 5:18 ‘그를’; 8:43 ‘먹고 살 돈을 의사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9:2 ‘아픈 사람들을’; 9:14 ‘대충’; 9:59 ‘주님’; 9:61 ‘그 사람한테’; 10:1 ‘두’; 10:1 ‘둘씩’; 10:32 ‘있었는데’; 10:39 ‘마리아는’; 11:13 ‘하늘로부터’; 11:14 ‘그런데 그 귀신은’; 11:24 ‘그때에’; 11:33 ‘바가지로 덮어’; 12:22 ‘자신의’; 13:7 ‘그러니까’; 13:27 ‘당신들이’; 13:35 ‘때가 올’; 17:6 ‘이’; 17:12 ‘예수님께’; 17:23 ‘또는’; 17:24 ‘인자의 날에’; 18:24 ‘괴로움에 휩싸인’; 20:9 ‘어떤’; 20:27 ‘반박’; 20:45 ‘자기’; 24:32 ‘우리 속에서’; 24:49 ‘보아라’; 24:50 ‘밖으로’.

정이 필요하고, 나머지 다섯 곳에서는 난외주가 추가되어야 한다.

(1) 누가복음 2:35

NTG	—καὶ σοῦ [δέ] αὐτῆς τὴν ψυχὴν διελεύσεται ῥομφαία—ὅπως ἂν ἀποκαλυφθῶσιν ἐκ πολλῶν καρδιῶν διαλογισμοί.
『개역개정』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새번역』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한글』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 상반절 양 끝에는 줄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개역개정』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대본이 달라서이다. 『새번역』은 줄표를 그대로 옮겨왔고, 『새한글』도 마찬가지다. 번역상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첫 단어 *καί*의 번역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그것을 접속사로 간주한 반면, 『새한글』은 부사로 간주했다.²⁷⁾ 한편, 대괄호에 든 *δέ*의 번역에 있어서는 세 국역이 일치한다. 즉, 다른 두 국역처럼 『새한글』도 대괄호 속 *δέ*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난외주도 붙지 않았다. 만약 번역한다면 *δέ*의 일반적 의미인 ‘그러나/그런데’로 옮겨야 할까? 여기서는 ‘그렇다면’, ‘따라서’ 등과 같이 약한 인과적 접속으로 새기는 것이 더 낫다.²⁸⁾ 그렇게 되면 34하반절과 35상반절 간에 하나의 논리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δέ*를 무시한 지금 상태로는 그 두 문장 사이에 단순 나열 이상 아무런 논리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제안하자면, 35상반절을 다음과 같이 쓰고 난외주를 붙여야 한다.

35—*그렇다면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렇다면’이 없음.

27) *καί*가 부사라는 사실이 명백하지는 않다. 하지만 주석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그리스어 본문 자체와 잘 부합한다. 줄표 자체가 이미 모종의 접속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접속사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만약 *καί*가 접속사라면 굳이 줄표가 있을 필요가 없다.

28) *BDAG, s.v. “δέ”*. 영역 성서 중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의 번역도 참조할 만하다. “Indeed,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2) 누가복음 5:39

NTG	[καί] οὐδείς πῶν παλαιὸν θέλει νέον· λέγει γάρ· ὁ παλαιὸς χρηστός ἐστίν.
『개역개정』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번역』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새한글』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낫지.’ 하고 그가 말하니까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καί**를 우리말로 옮기지 않았지만 대부분 영역처럼 『새한글』은 ‘그리고’라고 번역했다. 다만, 난외주를 누락함으로써 대괄호의 사본 비평적 의의를 무시했다. 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에 난외주를 더해서 “어떤 사본에는 ‘그리고’가 없음”이라고 밝혀야 한다.

(3) 누가복음 6:36

NTG	Γίνεσθε οἰκτίρμονες καθὼς [καί] ὁ πατὴρ ὑμῶν οἰκτίρμων ἐστίν.
『개역개정』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새번역』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 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새한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새한글』과 다른 두 국역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원문 문장의 어순을 그대로 반영했다. 둘째는 보조사 ‘도’를 ‘아버지’에 붙여서 원문 대괄호 속에 들어 있는 부사 **καί**를 살렸다. 이렇게 해서 『새한글』은 이전 두 국역보다 그리스어 본문에 더 가까워졌다. 다만, 여기에서도 난외주가 누락되었다.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도’ 대신 ‘아버지가’가 있음”이라는 난외주가 필요하다.

(4) 누가복음 11:20

NTG	εἰ δὲ ἐν δακτύλῳ θεοῦ [ἐγὼ] ἐκβάλλω τὰ δαιμόνια, ἄρα ἔφθασεν ἐφ' ὑμᾶς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개역개정』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새번역』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새한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1인칭 단수 대명사 ἐγὼ는 보통 생략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면 주어로서 ‘나’가 의도적으로 강조된다고 본다. 그리스어 구문의 이런 특별한 성격을 번역에 반영하기 위해 『새한글』은 ‘내가’ 뒤에 쉼표를 붙였다.²⁹⁾ 맞춤법 규정에 쉼표의 이러한 용도는 나오지 않지만,³⁰⁾ 그리스어 번역을 위해 고안된, 효과적인 장치라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원문의 대괄호를 온전히 반영한다면, “내가,”에 난외주를 달아 “어떤 사본에는 ‘내가,’ 대신 ‘내가’로 되어 있음”이라고 서술해 주어야 한다.

(5) 누가복음 13:35

NTG	ἰδοὺ ἀφίεται ὑμῖν ὁ οἶκος ὑμῶν. λέγω [δὲ] ὑμῖν, οὐ μὴ ἴδητέ με ἕως [ἤξει ὅτε] εἴπητε·
『개역개정』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29) 이 점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에서 하나의 번역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마가복음 번역 해설”, 22-23.

30) 인칭대명사의 강조 기능은 『문장부호해설』에 서술된 쉼표의 열다섯 가지 기능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중 아홉 번째로 서술된, “‘주제어’ 또는 ‘제시어’에 붙는 쉼표”의 기능과 유사하다.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문장부호해설』 (서울: 국립국어원, 2014), 6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46&etc_seq=431 [2022. 4. 9]).

『새한글』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사본에는 ‘때가 올’이 없음
-------	--

이 구절의 원문에는 두 군데에 대괄호가 붙어 있다. 두 번째 것은 『새한글』이 난외주로 잘 반영해 두었다. 하지만 첫 번째 대괄호 속 δε의 번역인 ‘그러나’에는 난외주가 달려 있지 않다. δε를 아예 번역조차 하지 않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에 비해서 원문에 더 가까워졌지만, 원문이 제시한 중요한 사본 비평적 정보를 누락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에 난외주를 붙여서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가 없음”이라고 써 주어야 한다.

(6) 누가복음 23:11

NTG	ἐξουθενήσας δὲ αὐτὸν [καὶ] ὁ Ἡρώδης σὺν τοῖς στρατεύμασιν αὐτοῦ καὶ ἐμπαιξάσας περιβαλὼν ἐσθῆτα λαμπρὰν ἀνέπεμψεν αὐτὸν τῷ Πιλάτῳ.
『개역개정』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새번역』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새한글』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원문에 대괄호 속 καί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이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주격조사를 붙여 ‘헤롯이’라고 옮겼고, 『새번역』은 심지어 대조 보조사를 붙여 ‘헤롯은’으로 번역했다. 국역 중 『새한글』(과가톨릭 『성경』)만 부사 καί를 제대로 번역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외주가 누락되었다. ‘헤롯도’에 난외주를 붙여 “어떤 사본에는 ‘헤롯도’ 대신 ‘헤롯이’로 되어 있음”이라고 써 주어야 한다.

이상 여섯 구절에서 『새한글』은 NTG 본문의 대괄호 부분을 다른 두 국역보다 더 충실하게 번역했지만, 대괄호의 사본 비평적 기능을 밝혀 줄 난

외주를 누락했다. 다른 24곳의 대괄호 부분 번역에서처럼 위 여섯 구절에도 “어떤 사본에는 …이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난외주를 첨가한다면 그만큼 더 원문에 근접한 번역이 될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새한글』이 대괄호와 이중 대괄호를 다루는 방식은 『새번역』에서 한 발 후퇴했다. NTG 본문에서 대괄호와 이중 대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치가 아니라 반드시 번역에 반영해야 하는 원문의 내재적 요소이다. 『새한글』 번역자들이 이중 대괄호를 대괄호로 바꾸고 대괄호를 벗겨서 난외주로만 처리한 조치는 편집자들의 본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원문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새번역』처럼 원문의 이중 대괄호와 대괄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기호의 뜻을 일러두기 등을 통해 밝히는 것이다.

3. 나오는 말

이 연구에서 나는 『새한글』이 원문, 즉 NTG²⁸에 얼마나 가까운 번역인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원문의 해당 낱말과 구문은 물론 누가복음 전반의 신학적 성격까지 고려해서 『새한글』이 원문의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충실하게 옮겨 내었는지를 평가했다. 아울러 원문 근접성을 절대적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국역 중 가장 최신이고 대중적인 두 역본,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비해 원문과 더 가까운지를 검토했다.

내가 던진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새한글』은 ‘새로운’ 번역인가? 둘째, 『새한글』이 새로 번역한 그리스어 본문, 신약성서 대본이 무엇인가? 셋째, 『새한글』은 그 대본, 즉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내재된 이중 대괄호([])와 대괄호([])를 어떻게 번역으로 옮겼는가?

첫 번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나는 여섯 구절을 표본으로 삼았다(3:23-38; 4:44; 10:1, 42; 12:32; 19:42). 매 구절 원문과 세 국역을 병행해 놓고 대조하면서 『새한글』이 다른 두 역본에 비해 더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따져 보았다. 성서 번역자들이 기존 국역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이전 번역이 주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 원문을 정확하게, 그리고 새롭게 옮겨낼 수 없다. ‘새로운 번역’으로서 바람직한 작업의 순서는 원문을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을 살펴보는 것이다. 『새한글』 번역자들이 그런 방식을 취했는지를 최종 번역문을 놓고 역으로 추적해 보았고,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많은 부분에서 『새한글』은 원문을

전면적으로 새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전 국역보다 원문에 더 가까워졌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대비평본의 새로운 본문이 반영된 최신 비평 본문 GNT⁵/NTG²⁸(2012)이 『새한글』의 대본이다. 다만, 사도행전 대비평본(2017)이 반영되지 못한 게 아쉽다.

세 번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나는 원문의 이중 대괄호 2개와 대괄호 59개가 들어갔던 구절들이 『새한글』에 어떻게 변환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중 대괄호([[])는 대괄호([])로 바뀌었고, 대괄호 59개 중 24개에 있어서는 대괄호를 지우고 난외주를 달아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서술했다. 나머지 35개를 전면 재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우리말 번역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섯 구절에 대해서는(2:35; 5:39; 6:36; 11:20; 13:35; 23:11) 본문 수정과 난외주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한글』의 일차적이고 공식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대의 성서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었다. 비공식적인, 다른 목표 하나가 원문 근접성이다. 그것은 번역 성서인 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목표다. 아무리 잘 읽히고 쉽게 이해된다 한들, 그 내용이 원문이 말하는 바와 다르다면 성서로서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새한글』 번역자들이 표면적으로 이 점을 강조하거나 힘주어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새한글』은 이전보다 더 원문에 근접한 성서가 되었다.³¹⁾ 성서 매 구절마다 모든 측면에서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옮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더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최신의 비평 본문을 대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 국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어 원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한 문장 한 문장 새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문의 낱말과 문장구조, 담화적 성격까지 가급적 그대로 옮겨 내는 이른바 ‘문자적’ 번역, 직역을 기본적인 번역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번역자들의 그러한 관점과 의도가 상당 부분 실제 『새한글』 번역 본문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나의 종합적 판단이다.

31) 일면 역설적인,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번역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역학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번역 과정에 생겨난 신학적, 교회 정치적 갈등과 논쟁은 잘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이슈는 달랐어도 유사한 성격의 갈등이 미국 주요 기독교단의 예전용 성서 개정(RSV와 NRSV)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새한글』이 애초에 『개역개정』을 대체하는 예전용, 강단용 성서가 아님을 표명함으로써, 오랫동안 『개역개정』을 사용해 온 한국 개신교 전체의 신학적, 목회적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 『개역개정』, 『새번역』, 성서 번역, 누가복음.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RV, NKSV,
Bible translation, the Gospel of Luke.

(투고 일자: 2022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4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성경개역』, 서울: 성서공회, 1938.
- 『성경전서』, 서울: 성서공회, 1911.
- Aland, B.,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6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 Aland, B.,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Aland, B.,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Aland, K., et al., *Greek New Testament*, 3rd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5.
- Aland, K., et al., *Greek New Testament*, 3rd corrected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83.
- Aland, K., et al., *Greek New Testament*, 4th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93.
- Aland, K., et al., *Greek New Testament*, 5th ed.,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14.
- Aland, B., Aland, K., Mink, G., Strutwolf, H., and Wachtel, K.,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IV: The Catholic Epistles. Part 1: *Text*; Part 2: *Supplementary Material*; Part 3: *Studie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 Nestle, 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scriptis collecto*, 12th ed.,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 Palmer, E., ed., *H KAINH ΔΙΑΘΗΚΗ.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 Strutwolf, H., Gäbel, G., Hüffmeier, A., Lakmann, M.-L., Paulson, G. S., and Wachtel, K.,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I: *The Synoptic Gospels*, Part 2 *The Gospel of Mark*, Part 1: *Text*; Part

- 2: *Supplementary Material*; Part 3: *Studie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1.
- Strutwolf, H., Gäbel, G., Hüffmeier, A., Lakmann, M.-L., Paulson, G. S., and Wachtel, K.,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Part 1: *Text*; Part 2: *Supplementary Material*; Part 3: *Studie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7.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문장부호해설』, 서울: 국립국어원, 2014,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46&etc_seq=431 (2022. 4. 9.).
- 김주한,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20:4 (2021), 729-768.
- 김주한, “『새한글성경』 사도행전 번역과 방향성: 헬라어 대본의 변경 가능성과 준비”, 『개혁논총』 60 (2022), 43-76.
- 김주한, “『개역개정』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13 “없음” 구절들에 대한 소고”, 『개혁논총』 55 (2021), 9-40.
- 김주한, “NA28 공동 서신의 본문 변경 부분에 대한 국역 제안-『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을 참조하여”, 『신약연구』 16:2 (2017), 133-179.
- 김창락,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 책임번역자와의 대화”, <https://youtu.be/cHuXApKS5tc> (2022. 4. 1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메츠거,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제2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 민현식, “『새한글성경』 국어학적 특징”, https://youtu.be/LcR_qxKJH_Y (2022. 4. 13.).
- 이두희, “『새한글성경』 주기도문 읽기 ①, ②”, <https://youtu.be/7f9c5-OJao8>, <https://youtu.be/Sib3FqXdABo> (2022. 4. 13.).
- 이두희, “『새한글성경』 주요 독자층과 번역 특징”, <https://youtu.be/OvOduOpRnNs> (2022. 4. 13.).
- 이두희, 박동현,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조재천, “새로운 사도행전 본문: 네스틀레-알란트 28판과 대비평본의 차이점들”, 『신약논단』 29:2 (2022), 113-156.
- Aasgaard, R., “Brothers in Brackets? A Plea for Rethinking the Use of [] in NA/UBS”, *JSNT* 26:3 (2004), 301-321.
- Bovon, F., *Luke 3: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19:28-24:53*,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Abstract>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 as a Better Translation:
A Study Based on the Text of the Gospel of Luke**

Jaecheon Cho
(Jeonju University)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 a newly translated Korean bible published in late 2021 aims primarily at accommodating the need of young Bible readers by introducing more colloquial style and vocabulary. Whether this stated goal was achieved or not needs further study, bu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whether the NKT NT&Ps achieved an unstated, but possibly more important goal as a Bible translation. Generally speaking, it is the proximity or faithfulness toward the original text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a translation. This study finds that the NKT NT&Ps is a far better translation than its predecessors (both the NKRV and the RNKSV) in terms of its faithfulness to the form and content of the original text (the Greek text of the Gospel of Luke). The NKT NT&Ps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literal translation of all, as it rarely fails to translate any word in the Greek text as well as to follow its word order very closely. In contrast to the NKRV or the RNKSV, the NKT NT&Ps reflects the most up-to-date critical text in the 28th edition of the NTG. With respect to its treatment of texts in square brackets and double square brackets, the NKT NT&Ps is not as literal as the RNKSV which adopted the same sign as the Greek text. Overall, the NKT NT&Ps deliver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more closely and faithfully than previous Korean versions.